

여성들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구를 들이밀고, 헌법을 유린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는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며 언제라도 제2의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광기어린 담화를 발표해 또 한번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즉각적인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의 국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윤석열 즉시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즉시 탄핵’이라는 주권자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켜왔습니다. 군부독재에 맞서 목숨으로, 피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파괴하려 시도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갑차에 맨 몸으로 뛰어들며, 국회를 인의 장막으로 둘러 밤을 새우는 국민이 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할 것입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10대 청소년부터 2030여성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봉 혁명’이라 불릴만큼 광장을 가득 메우고 K팝에 맞춰 노래하며 광장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도, 2016년 탄핵 광장에서도 국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국회 담장에서 불침번을 서는 청년들, 광장에 나온 아이들의 쉼터를 위해 키즈버스를 대여한 엄마들, 추위를 녹이라고 따뜻한 커피와 먹거리를 선결제하는 국내외 시민들, 매일 저녁 광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젠더 갈라치기’로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윤석열 정부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여성들에 의해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인권’적인 행태에 쌓였던 분노가 ‘응원봉 혁명’으로 지금 광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혐오에 기댄 정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민여협)는 전국의 여성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시 탄핵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여협은 성평등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